

투데이 칼럼

북한의 한류 열풍

‘한류’로 일컬어지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북한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북한에 처음 남한의 영상 매체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이완으로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터다. 배급조차 풀린 주민들은 장사와 밀수에 뛰어들었고 북중 접경까지 진출했다.

당시 남한 가요가 중국 연변 가요로 포장되어 북한에 유입되면서 북한에도 한류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 북한 사람들은 남한 가요를 중국 연변 가요로 알고 따라 불렀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통한 북한 외부 문화 유입의 시발점이었다. 현재 북한의 입시장에서는 중국을 통해 몰래 들어온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이 담긴 CD나 DVD 등이 공공연히 팔리고 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통제를 피해가면서 까리까리 남한 영상물을 돌려가며 보고 있다. 그동안 가장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는 ‘겨울동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올인’ 등이다.

드라마 외에도 ‘무한도전’이나 ‘박지성’과 같은 프로그램까지 방영된 지 1주일 만에 북한에서 유행이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되었다. 이는 남한의 문화와 한류 바람이 알게 모르게 북한 사회 깊숙이 퍼져 있음을 말해준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남북 문화교류가 시작됐다.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아졌다. 2000년대 중, 후반부터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북한에 본격적인 외부 문화 유입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끊임없는 단속과 사상교육에도 점차 많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가 한류를 향하고 있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으로 북한의 대중문화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걸그룹이라 불리는 모란봉악단이다.

어제가 드러난 웃과 화려한 액세서리, 짙은 화장, 레이저 조영 아래

점자악기를 다루는 모란봉 악단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심지어 미국의 디즈니 만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했다.

미국 영화 ‘북키’의 한 장면을 무대 배경 영상으로 보여주며 주제곡까지 연주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2017년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언했다.

반면 한류는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특히 북한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며 한국 말투의 유행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류 바람을 ‘남조선 날라리풍’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적국 병든 자본주의’ 등으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 터져 나온 한류 열풍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으로 점차 퍼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영상물을 통해서 웃이나 헤어스타일, 서울 말씨 등 남한 따라 하기가 점차 주민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 많은 북한 청소년들이 한류를 접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한류 침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pop을 듣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과 사상교육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은 북한식이 아닌 옷차림과 머리단장, 외래어 사용과 문화생활까지 통제하고 나섰다.

북한 주민들은 강력한 통제와 탄압 속에서도 남한 문화를 일상 속으로 계속 접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남한 문화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북한 문화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 선전을 위해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통제와 이념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 소련에서도 청소년들이 비틀스를 보면서 자유주의를 갈망했다. 그리고 소련은 붕괴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서독 문화가 동독으로 유입되면서 마침내 통일 독일이 일어났다. 북한에서도 한류가 통일을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다.

독자재언

사이렌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뱀사람을 유혹하여 배를 난파시키는 반은사람 반은세인(반인반초) 바다 요정이다.

호메로스가 저술한 오디세이아에는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혼을 빼앗겨 버려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몰 지역에 다다르기 전 돛대에 몸을 빗살로 묶고 밀랍으로 귀를 틀어박는 등 사전에 대비하여 그 위험을 벗어나도록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최근길 승용차에서 흘러나오는 젊은 여가수가 부르는 ‘사이렌’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본인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노래가 사에 따라 직관적으로 잘 지어진 제목이라 노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일정한 소리로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장치 발명품의 이름을 사이렌이라 이름붙였고 우리는 주변에서 소방차,

아름다운 노랫소리 사이렌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를 통해 사이렌의 경고를 접했을 것이다.

사이렌은 신화에 나오는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의 소리, 알람을 통한 즉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고의 소리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죽음과 관계된 소리이다.

이 넓은 도로에서 나 하나 양보한다고 말라 지렛다며 스스로의 잘못이 없는 듯 위안하지만 도로에 있는 개개인 나 하나 양보할 때 비로소 소방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는 누군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도착까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 듯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나오는 선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은 듯 양보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서 요란한 굉음을 내며 소방차,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린다면 그 소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방대원의 절규이고 비명이며 간절한 부탁인 것이다.

영웅은 대단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군가의 영웅이 될

것이며 소방차량에 한발 양보한다면 그 순간 본인도 그 영웅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옆에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양보하여 이 사회의 작은 영웅이 되기를 소망한다. 모두가 작은 영웅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밝고 희망이 가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손진영 익산소방서 팔봉 119안전센터 소방장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설

드론을 이용한 벌씨 파종

전북 도내 농가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벌씨 파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벌씨를 바로 파종하고 직접 시간도 짧기 때문에 영농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드론이 바람에 취약해 기상 여건에 맞추기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드론 파종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등 보완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디지털 농업 보급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벌씨 파종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올해는 2개 지역으로 늘린 것이다.

특히 벌씨가 정상적인 어른 모로 자라는 비율 즉 ‘임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우량계통 ‘전주 656호’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벌씨 파종의 기계 이앙에 비해 초기 물 관리와 잡초성 벼 방제가 어렵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드론 벌씨 파종 재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도내 농촌 폐교의 활용 방안

갈수록 학생이 줄면서 농촌 학교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의 한 폐교가 한해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을 해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치바현에 있는 126년 역사의 후타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에 문을 닫았다. 주민들은 추억이 담긴 학교 건물을 최대한 살리기를 원했다.

결국 그 뜻에 따라 도시민 교류시설이 조성됐다. 1층에 있는 교실에는 식당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 공간이 들어섰다. 2층에는 교실을 활용해서 숙박시설을 조성했다.

관광객을 위해 복욕탕까지 만들어 놓았다. 체육관은 농산물 판매 공간으로 탈바꿈해 250여 지역 농민에게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이제 이곳은 연간 방문객 60만 명에 연 매출 6억 엔을 올리고 있다.

이곳은 2015년 문을 연 뒤 보 조금 없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

해야 하는 점도 있다. 일반 이앙은 이앙 시 비료, 농약을 동시에 살포한다. 반면 드론 파종은 살포 후에 비료리턴가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그러면서 올해 디지털 농업 보급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벌씨 파종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올해는 2개 지역으로 늘린 것이다.

특히 벌씨가 정상적인 어른 모로 자라는 비율 즉 ‘임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우량계통 ‘전주 656호’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벌씨 파종의 기계 이앙에 비해 초기 물 관리와 잡초성 벼 방제가 어렵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드론 벌씨 파종 재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 이곳 시설은 호텔과 가숙사를 운영하는 점원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확실한 전문 경영, 그리고 ‘추억의 초등학교’라는 차별화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초등학교의 모습을 살려 특화시키고 차별화시킨 것이 많은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성공의 비결이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공간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서 지방 소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폐교가 이런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전북 도내에도 일부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폐교가 방치돼 지역에 흉물이 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폐교 대부분은 잡풀이 무성하고 폐건물이 방치돼 있다.

폐교는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폐교 활용 대책이 절실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